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유지애** · 김옥진***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별 차이가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체 학령기 중에서 고등학생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중학교 1학년 4차년도(현재 고등학교 1학년) 패널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t-test 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수준 증가는 학교생활적응 수준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 감소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준수,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변인을 포함하여, 하위변인들의 합인 학교생활적응 전체 변인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 감소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는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준수 변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적응 전체 변인에서는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조절효과는 대인관계 관련 변인(교우 및 교사관계)에서 뚜렷하게 확인이 되었는데,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대인관계 감소 기울기 폭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인관계 적응 측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차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개입과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우울, 학교생활적응, 성별

* 본 연구는 유지애(2016)의 석사 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kimwj0227@uos.ac.kr

I. 서 론

적응(adjustment)의 의미는 개인이 사회 환경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과거의 소극적 관점에서 확장되어, 필요하다면 개인의 변화만이 아닌 환경 체계의 변화까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문은식, 2002). 적응 개념은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으로, 특히 발달상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조은정, 2008).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적응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강유진, 문재우, 2005).

학교생활적응 관련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그 자체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초기 연구들은 학업 성취, 비행·일탈의 특정 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나(Bullis & Yovanoff, 2002), 지금은 학교생활적응을 단일 개념이 아닌 여러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복합개념으로 보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문은식, 2002; 김용래, 허남진, 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 연구도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우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김명식, 2008;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한편, 다수의 우울 관련 연구들은 우울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강상경, 2010; Nolen-Hoeksema, 2001). 우울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정도 더 많이 관찰되며, 우울 증상의 발현은 여성은 섭식장애 등으로 내재화되고, 남성은 주로 파괴적 행동장애, 물질남용장애와 같은 외현화 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Lewinsohn, Clarke, Seeley & Rohde, 1994; Cochran & Rabinowitz, 2003).

우울 증상의 성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울과 성별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남녀가 같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해도, 우울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 유병률, 자살생각, 자살시도를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배 정도 높고(Lewinsohn, Rohde, Seeley & Baldwin, 2001), 우울은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예

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성진 외, 2002). 따라서 여학생의 자살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 자살률은 남학생이 더 높다(통계청, 2014). 즉, 우울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학생이 더 크게 받고 있다는 것으로(강상경, 2010), 우울이 일상생활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우울은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행된 청소년의 우울 관련 연구에서는 그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우울 관련 연구에서는, 성차는 남녀 학생 집단 간의 우울 수준 비교 정도로만 제시가 되고(최인재, 2007; 김명식, 2008; Zahn-Waxler et al., 2008),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성차 연구는 비교적 찾아보기 힘들다. 즉, 같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녀 학생의 성별에 따라 동일하게 혹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대한 확인은, 성별 차이를 고려한 우울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차원의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이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봄을 통해, 우울 중재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세워진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별은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적응 영역 중에서 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에는 하루 일과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점차 이들의 생활 중심은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하게 된다(소선숙 외, 2010). 따라서 청소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학교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로(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 여부는 이들의 바람직한 적응과 건강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소선숙 외, 2010).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 개념은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Bierman(1994)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고(손운용, 곽수란, 2006 재인용, pp.109), 문은식(2002, pp.24)은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내재적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체계를 수용하거나 학교체계에 필요한 변화를 주어 청소년과 학교환경 간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업 성취나 비행·일탈 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려고 시도해 왔다(Bullis & Yovanoff, 2002).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영역은 학업 성적이나 특정 행동만으로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즉, 학교생활적응이라는 개념은 단일 개념이 아닌 여러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된 복합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문은식, 2002).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영역을 3개에서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민병수, 1991; 김용래, 허남진, 2003; Bierman, 1994). 주로

학업성적이나 주관적 성적 만족도, 학습태도 등의 학업 성취, 교우 및 교사와의 우호적·지지적 관계 형성 여부, 학교규율·규칙 준수 여부 등이 학교생활적응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하위변인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토된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인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활동은 학습방법, 학습정도,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임규혁, 1991),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적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은식, 김충희, 2002). 둘째, 학교생활적응 수준과 학교 규칙 준수 수준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정윤, 이경아, 2004).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규범, 질서 등과 대치되는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고되며, 이들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넘어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이경화, 손원경, 2005). 셋째, 학교적응 수준은 친구지지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정현, 이미숙, 2014). 특히, 긍정적 교우관계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실패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었다(Ladd, 1990). 넷째, 교사와의 관계 친밀도 수준은 학교생활적응 긍정적 인식 수준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현, 이미숙, 2014).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영역을 학습활동, 학교규칙 준수,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나누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청소년기 우울

아동과 청소년의 임상적 우울 실체와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는 오랜 시간동안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어왔다. 과거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우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가정이 일반적이었는데(Rie, 1966), 그 이유는 성인기 우울에서 관찰되는 신체적·인지적·정서적 증상들이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Wicks-Nelson & Israel, 1991). 그러나 아동기와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기 우울과 다른 모습으로 증상이 나타날 뿐이지, 우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 증상들은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우울의 모습은 아니지만, 성인 우울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른 증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우울등가증상(depressive equivalent)’, 혹은 ‘가려진 우울증

(masked depression)'으로 표현하였다(Carlson & Kashani, 1988).

뿐만 아니라, 아동기를 지나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 단계인 청소년기에서는, 청소년기 고유의 우울 특성 뿐 아니라 성인기와 유사한 우울 특성도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울 유병률은 학령전기(6세 미만) 아동은 1% 미만, 중기 아동기(6-12세)에는 2~3%, 청소년기(13-20세)에는 6~9% 범위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는 성인 유병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우울이 현저하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Dumas & Nilson, 2003). 또한, 청소년의 우울 평생유병률도 성인기와 비슷한 15~20% 정도로 추정 보고되고 있다(Kessler et al., 1994). 우울증 지속기간과 재발률에 있어서도, 청소년기에 시작된 우울은 성인기에 시작된 우울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며, 재발될 확률이 더 높다(Kovacs, Goldston & Gatsonis, 1993).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80%가 1년 이내에 회복되지만, 회복된 청소년들 중 54~61%가 3년 이내에 다시 재발을 경험하고 있다(Kovacs, Obrosky, Gatsonis & Richards, 1997). 이는 우울증 환자 중에서 1회 발병만을 끝으로 하여, 우울증 발병 이전의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환자의 50~85% 정도는 재발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치로(김남순, 2008), 청소년기 우울은 이미 성인기 우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아동·청소년 우울 관련 연구 기간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연구 범위도 다소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져 와서, 정확한 국내 아동·청소년의 우울 유병률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김영아, 2000). 다만, 한국형 아동 우울척도(CDI)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에서, 국내 아동 우울 평균 점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조수철, 이영식, 1990), 아동·청소년기 우울 증상들이 국내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영아, 2000). 또한 우울은 외현화 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내재화된 특성으로 인하여 잘 드러나지 않고, 성인 우울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우울 확인은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우울 유병률은 더 낮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Weisz, Suwanlert, Chaiyasit & Walter, 1987).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고된 수보다 실제로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국내 아동·청소년은 이미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김영아, 하은혜, 오경자, 김소라, 1996).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본 연구는 임상적 우울 진단 척도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자 한다.

3. 청소년기 우울, 우울 성차,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보고되어져 왔다. 이러한 변인들은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보고되었는데, 성별, 연령, 건강, 성적 등의 인구학적 특성 요인(조성진 외, 2002; 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김명식, 2008),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등의 심리학적 요인(신민섭, 오경자, 1993; 최재빈, 박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민, 1999; 김교현, 2004; 장신재, 양혜원, 2007; 조은정, 2008), 가족구조,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부모와의 관계 등의 가족적 요인(강유진, 문재우, 2005; 소선숙 외, 2010), 친구 및 교사 등의 학교요인(임수경, 이형실, 2007) 등이 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우울은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으로(신민섭, 오경자, 1993; 김교현, 2004), 우울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소선숙 외, 2009; 최경일, 2012; 박정현, 이미숙, 2014).

청소년기에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시도되고 있다. 첫째,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과업 수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 진학 문제 등으로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신재은, 1999). 또한 2차 성장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신체 성장은 급격히 진행되는데 비해 정서적, 인지적 성숙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영역 간 성장 및 성숙의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 특징들은 이들의 심리상태를 매우 불안하고 취약하게 만든다. 이 시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과 불안 등의 다양한 정신 병리적 증상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한창환, 2001).

이러한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학교생활적응 개념을 단일개념으로 접근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보고하였다(김자경 외, 2007; 김명식, 2008). 이들 연구에서는, 우울과 학교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생활적응 개념을 여러 하위변인으로 구성된 복합개념으로 정의하여,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과 우울과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보고하였다. 최재빈 외(1999)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학업성적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데, 우울성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업성적이 하위권에 분포되어 있었다. 조성진 외(2001)는 학업만족도가 높은 학생 집단에 비해 학업만족도가 낮은 학생 집단에서 우울증상 위험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조운숙과 이경남(2010)는 학교 규칙 준수 부적응은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정현과 이미숙(2014)의 연구에서는 우울과 규칙준수 간의 영향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두 연구가 사용한 학교규칙 척도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박정현, 이미숙, 2014). 이정선과 이형실(2012)의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조운숙과 이경남(2010)은 우울과 교사관계 부적응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제 3의 변수와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보호·위험 요인 탐색이 시도되고 있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제 3의 변수들의 경로 분석 및 모형 검증 시도들이 보고되고 있다(장신재, 양혜원, 2007; 최경일, 2012).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한 최경일(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요인을 투입하였을 때 부분매개모형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지만, 동시에 우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도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수준의 증가는 아동의 학교적응수준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성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장신재, 양혜원, 2007).

한편,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과 함께, 남녀의 성차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설명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 중 사춘기 이전부터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녀 간 성차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회화 관점이 주로 지지되고 있다(Nolen-Hoeksema and Girgus, 1994). Addis(2008)는 성 반응 이론(The gendered responding framework)을 통해, 사회화가 남성과 여성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성 사회화(gender socialization)는 한 개인이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 존재에 기반 한 명시적이거나 내재적인 규칙들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과정이다(Pollack & Levant, 1998). 그리고 한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반응은 성 사회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성 반응 이론이다. 실제로 남성들은 건강에 위협적인 행동들을 함으로서 남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동시에 여성성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전통적인 남성 규범을 고수하는 남성들일수록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경험을 다른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 역할의 사회화는 남성

들이 우울한 기분을 인지 및 표현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urtenay, 2000; Cochran & Rabinowitz, 2003).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남성 역시 여성과 동일한 심리적 고통을 받지만, 슬픔이나 우울감을 느끼고 경험하기 보다는, 외현화 증상의 표출을 통해 고통을 표현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과 구별되는 남성 우울(masculine depression)을 경험하게 된다. 대표적인 남성 우울의 증상은 분노, 공격성, 그리고 물질남용 외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이 있다(Cochran & Rabinowitz, 2003). 즉, 남성은 우울을 경험할 때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외부 행동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남녀 간 성차가 발생하였다면, 성별 차이는 남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많은 적응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이정은, 조미형, 2007). 실제로 청소년의 우울 및 학교생활적응 관련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적응상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고, 우울 성차와 학교생활적응 성차 관련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성차는 우울 유병률 성차와 우울 증상 성차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차 특성은 성인과 청소년의 두 집단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Lewinsohn et al., 1994). 여학생의 우울 유병률은 남학생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며, 우울 증상의 발현은 여학생은 섭식장애와 같이 내재화된 특성으로, 남학생은 파괴적 행동장애, 물질남용장애와 같이 비교적 외현화된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상경, 2010; Lewinsohn et al., 1994; Kessler et al., 1994; Nolen-Hoeksema, 2001). 둘째, 학교생활적응 성차를 보고한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일부 있기는 하나(이태상, 2010; 황은희, 강지숙 2012), 다수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송운용, 곽수란, 2006; 김명식, 2008).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으나(이정은, 조미형, 2007), 그 수가 많지 않고 연구자마다 다소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성차에 따른 하위변인 간 통일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앞서 제기된 논의를 토대로,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에는 성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 성차가 학교생활적응 성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즉, 우울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녀

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남녀 학생의 내·외현화 된 우울 특성이 학교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수적으로 더 많이 보고되는 여성의 우울에만 관심을 갖거나, 우울 성차가 고려된 정책 및 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제시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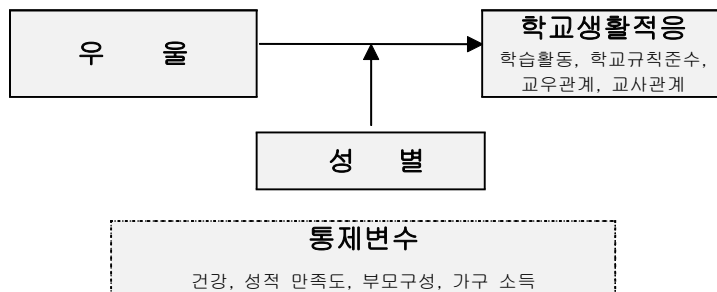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중학교 1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현재 고등학교 1학년)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고등학생의 우울 수준은 학령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인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4),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요 분석변인들 가운데 결측치가 포함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4년도 패널 응답자 총 2,346명 가운데 1,984명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변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병수가(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 척도 하위변수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학습활동 .789, 학교규칙 .761, 교우관계 .617, 교사관계 .813로 나타나,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각 하위변수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 20개 문항에 대한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7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개념을 포함한다고 여겨지는 내적 일치도 기준은 $\alpha = .80$ 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계산하여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각 하위변수와 함께 본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 우울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의 우울척도를 수정·보완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90로 나타났다.

3) 조절변수 : 성별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성별로, 남성(0)을 기준변수로 하여 여성(1)을 더미변수로 처

리하였다. 분석 자료의 성비 구성은, 전체 1,984명 중 남학생은 1,009명(50.9%), 여학생은 974명(49.1%)이다.

4)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통제 변수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변수들 중에서 본 패널 자료에서 응답된 문항인 건강상태, 성적만족도, 부모구성, 가구소득의 총 4개 변수를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건강상태'와 '성적 만족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구소득'은 응답자의 연평균 가구소득인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모구성'의 원자료의 부모구성은 1) '친아버지 + 친어머니', 2) '친아버지만', 3) '친어머니만', 4) '친아버지+새어머니', 5) '새아버지 + 친어머니', 6) '새아버지 + 새어머니', 7) '새아버지만', 8) '새어머니만', 9) '부모님 모두 안 계심'으로 측정되었다. 표본의 부모구성은 친부모 87.7%, 한부모 10.7%, 그 외 부모구성비는 2% 미만에 불과하여, 본 연구에서는 9개의 부모구성 유형을 1) '친아버지 + 친어머니'를 1) '친부모'로, 2) '친아버지만'과 3) '친어머니만'을 2) '한부모'로, 4) '친아버지+새어머니', 5) '새아버지 + 친어머니', 6) '새아버지 + 새어머니', 7) '새아버지만', 8) '새어머니만', 9) '부모님 모두 안 계심'을 3) '기타'로 구분하였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응답률이 가장 높은 친부모를 기준집단(0)으로 비교점을 설정하여, 친부모(0)와 한부모(1), 친부모(0)와 기타(1)로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t-test 분석을 실시하고, 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문항 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러나 독

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항을 직접 사용하게 되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후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 값은 모두 3 이하로, 공차한계(TOL)도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 조절효과는 위계적 모형 간 R^2 변화량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984)

	항목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1,009	50.9	.491	.500
	여자	975	49.1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못함	7	0.4	3.237	.577
	건강하지 못함	130	6.6		
	건강함	1,232	62.1		
	매우 건강함	615	31.0		
성적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못함	262	13.2	2.258	.741
	만족하지 못함	1,040	52.4		
	만족함	589	29.7		
	매우 만족함	93	4.7		
부모 구성	친부모	1,739	87.7	-	.511
	한부모	212	10.7		
	기타	33	1.7		
가구연간 소득 (만원)		-	-	4681.27	2635.031

표 2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분석된 연구 대상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984명이며, 남녀 성비는 50.9%, 49.1%이다. 연구 대상자의 건강 상태는 ‘매우 건강하지 못함’이 7명(.4%), ‘건강하지 못함’이 130명(6.6%), ‘건강함’이 1,232명(62.1%), ‘매우 건강함’이 615명(31.0%)으로 응답되었다. 전체 응답 중 건강하다는 비율은 전체의 93.1%로, 응답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본인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성적 만족도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함’이 262명(13.2%), ‘만족하지 못함’이 1,040명(52.4%), ‘만족함’이 589명(29.7%), ‘매우 만족함’이 93명(4.7%)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문항과 달리 성적 만족도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5.6%가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조성진 외, 2001; 김명식, 2008). 연구 대상자의 부모 구성은 친부모 1,739명(87.7%), 한부모 212명(10.7%), 기타 33명(1.7%)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친부모를 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가구 연간 평균 소득은 4681.27만원으로 보고되었다.

2. 주요 변수의 기술분석 결과

1) 학교생활적응 수준

표 3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검증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평균은 2.928(.367)로 보통(2.50)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들의 평균은 각각 학습활동 2.773(.492), 학교규칙 2.936(.489), 교우관계 3.109(.379), 교사관계 2.875(.579)로, 학교생활적응 하위변인 역시 보통(2.50)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남녀 학생 간 학교생활적응 수준 평균 비교는, 교사관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즉,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남녀 학생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사관계의 3개 영역에서 남녀 학생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고, 학교생활적응 전체, 교우관계 영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성차

(N=1,984)

변수명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생활적응	전 체	1,984	2.923	.367	-1.332
	남학생	1,009	2.913	.392	
	여학생	975	2.935	.340	
학습활동	전 체	1,984	2.773	.492	-1.994*
	남학생	1,009	2.752	.525	
	여학생	975	2.796	.455	
학교규칙	전 체	1,984	2.936	.489	-3.903***
	남학생	1,009	2.894	.524	
	여학생	975	2.979	.446	
교우관계	전 체	1,984	3.109	.379	-1.844
	남학생	1,009	3.094	.396	
	여학생	975	3.125	.360	
교사관계	전 체	1,984	2.875	.579	2.811**
	남학생	1,009	2.911	.605	
	여학생	975	2.838	.549	

* $p<.05$, ** $p<.01$, *** $p<.001$

2) 우울 수준

표 4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 정도를 알아본 결과이다. 청소년의 우울 수준 평균은 1.880(.557)로 보통(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간의 우울 수준 평균은 여학생의 우울 수준(1.978)이 남학생(1.785)보다 0.19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 학생 집단 간 우울 수준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학생 우울 평균 점수(검정값=1.785)를 기준으로 하여, 일표본 t-test 분석을 통해 여학생 우울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학생 우울 수준 평균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의 우울 수준 성차

(N=1,984)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우울	1,984	1.880	.557	(검정값=1.785)
남학생 우울	1,009	1.785	.534	10.711***
여학생 우울	975	1.978	.563	

* $p<.05$, ** $p<.01$, *** $p<.001$

3.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표 5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1,984)

	1	2	3	4	5	6	6-1	6-2	6-3	6-4
1	1									
2	.110***	1								
3	.025	-.044*	1							
4	-.291***	-.210***	-.075**	1						
5	-.099***	-.056*	.025	.173***	1					
6	.143***	.146***	.121**	-.307***	.030	1				
6-1	.172***	.202***	.126**	-.309***	.045*	.768***	1			
6-2	.021	.046*	.088***	-.105***	.087***	.754***	.469***	1		
6-3	.162***	.074**	.137	-.338***	.041	.726***	.454***	.427***	1	
6-4	.093	.111	.036	-.207***	-.063*	.773***	.406***	.389***	.442***	1

1=건강상태, 2=성적만족도, 3=가구연간소득, 4=우울, 5=성별(여자=1) 6=학교생활적응(전체), 6-1=학습활동, 6-2=학교규칙, 6-3=교우관계, 6-4=교사관계

* $p<.05$, ** $p<.01$, *** $p<.001$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 독립, 조절, 그리고 종속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와 유의확률 값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울 변수와 학교생활적응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하위변인인 학습활동($r = -.309, p < .001$), 학교 규칙준수($r = -.105, p < .001$), 교우관계($r = -.338, p < .001$), 교사관계($r = -.207, p < .001$) 뿐 아니라 학교생활적응 전체 변수($r = -.307, p <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우울을 높게 보고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낮게 보고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 측정모형 분석

1)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

표 6에서 표 10까지는 우울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검증한 분석결과로, 모델 1에서부터 모델 3까지는 관련변인의 주효과를 살펴보고, 모델 4는 두 변인 간 관계에 있어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한 것이다.

(1) 학습활동

표 6은 우울과 학습활동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우울과 학습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모델 2에서는, 우울은 학습활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247, p < .001$). 그 다음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모델 4에서는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과 학습활동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은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우울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

(N=1,984)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1.977	28.483	2.656	29.127	2.618	28.764	2.669	27.157
건강상태	.125 (.147)	6.757 ***	.068 (.080)	3.663 ***	.073 (.086)	3.928 ***	.072 (.085)	3.890 ***
성적 만족도	.128 (.193)	8.869 ***	.098 (.147)	6.854 ***	.099 (.149)	6.959 ***	.098 (.148)	6.930 ***
한부모 (기준: 친부모)	-.025 (-.016)	-.683	-.029 (-.018)	-.809	-.026 (-.016)	-.745	-.026 (-.016)	-.735
기타부모구성 (기준: 친부모)	-.131 (-.034)	-1.566	-.128 (-.033)	-1.573	-.109 (-.028)	-1.345	-.104 (-.027)	-1.281
가구 연간 소득	.000 (.123)	5.351 ***	.000 (.103)	4.625 ***	.000 (.101)	4.522 ***	.000 (.101)	4.528 ***
우울			-.218 (-.247)	-11.048 ***	-.232 (-.263)	-11.707 ***	-.259 (-.294)	-9.302 ***
성별(여)					.101 (.103)	4.849 ***	.101 (.103)	4.855 ***
우울 x 성별(여)							.052 (.042)	1.388
R ² (수정된 R ²)	.082(.079)		.135(.133)		.145(.142)		.146(.143)	
ΔR^2			.053***		.010***		.001	
F-test	35.228***		51.498***		48.002***		46.262***	

* $p < .05$, ** $p < .01$, *** $p < .001$

(2) 학교규칙 준수

표 7

우울이 학교규칙 준수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 (N=1,984)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740	38.241	3.003	31.090	2.963	30.732	2.995	28.748
건강상태	.012	.636	-.010	-.494	-.005	-.253	-.005	-.274
	.014		-.012		-.006		-.006	
성적 만족도	.032	2.118	.020	1.314	.021	1.386	.021	1.369
	.048	*	.030		.032		.031	
한부모 (기준: 친부모)	.024	.628	.022	.592	.025	.662	.025	.668
	.015		.014		.016		.016	
기타부모구성 (기준: 친부모)	.032	.365	.033	.381	.052	.612	.056	.648
	.008		.009		.014		.015	
가구 연간 소득	.000	3.994	.000	3.679	.000	3.573	.000	3.575
	(.095)	***	(.088)	***	(.085)	***	(.085)	***
우울			-.084	-4.038	-.099	-4.717	-.116	-3.916
			(-.096)	***	(-.113)	***	(-.132)	***
성별(여)					.105	4.733	.105	4.735
					(.107)	***	(.107)	***
우울 x 성별(여)							.032	.799
							(.026)	
R ² (수정된 R ²)	.011(.008)		.019(.016)		.030(.026)		.030(.026)	
△R ²			.008***		.011***		.000	
F-test	4.245**		6.283***		8.643***		7.641***	

* $p < .05$, ** $p < .01$, *** $p < .001$

표 7은 우울과 학교규칙 준수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우울과 학교규칙 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모델 2에서는, 우울은 학교규칙 준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beta = -.096$, $p < .001$). 그 다음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모델 4에서는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과 학교규칙 준수 변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은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교우관계

표 8

우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 (N=1,984)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608	47.959	3,259	46,347	3,229	46,017	3,324	43,961
건강상태	.100 (.153)	6.914 ***	.046 (.070)	3.187 **	.049 (.075)	3.450 **	.048 (.073)	3.369 ***
성적 만족도	.032 (.062)	2.804 **	.003 (.005)	.251	.003 (.007)	.319	.003 (.005)	.249
한부모 (기준: 친부모)	.050 (.041)	1.767	.047 (.038)	1.718	.049 (.040)	1.796	.049 (.040)	1.825
기타부모구성 (기준: 친부모)	-.008 (-.003)	-.126	-.005 (-.002)	-.082	.010 (.003)	.152	.019 (.006)	.303
가구 연간 소득	.000 (.149)	6.383 ***	.000 (.125)	5.577 ***	.000 (.122)	5.479 ***	.000 (.122)	5.503 ***
우울			-.209 (-.307)	-13.745 ***	-.220 (-.324)	-14.388 ***	-.270 (-.397)	-12.592 ***
성별(여)					.078 (.103)	4.848 ***	.078 (.103)	4.873 ***
우울 x 성별(여)							.095 (.100)	3.320 **
R^2 (수정된 R^2)	.049(.047)		.132(.130)		.142(.139)		.147(.144)	
ΔR^2			.083***		.010***		.005**	
F-test	20,518***		50,208***		46,883***		42,609***	

* $p < .05$, ** $p < .01$, *** $p < .001$

표 8은 우울과 교우관계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울과 교우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모델 2에서는, 우울은 교우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307$,

$p<.001$).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모델 4에서는 R^2 이 다소 적은 변화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005$, $p<.01$). 또한, 독립변수 β 값은 (-)의 값을 가지고,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항 β 값은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일수록 우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울과 교우관계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beta=.100$, $p<.01$).

(4) 교사관계

표 9

우울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 (N=1,984)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β)	t	B(β)	t	B(β)	t	B(β)	t
(상수)	2.376	28.184	2.962	26.342	2.972	26.340	3.083	25.319
건강상태	.081 (.081)	3.623 ***	.033 (.032)	1.415	.031 (.031)	1.357	.030 (.030)	1.293
성적 만족도	.080 (.103)	4.580 ***	.054 (.069)	3.083 **	.054 (.069)	3.068 **	.053 (.068)	3.019 **
한부모 (기준: 친부모)	.035 (.019)	.789	.032 (.017)	.727	.031 (.017)	.712	.032 (.017)	.730
기타부모구성 (기준: 친부모)	.128 (.028)	1.261	.131 (.029)	1.308	.126 (.028)	1.253	.137 (.030)	1.362
가구 연간 소득	.000 (.047)	1.997 *	.000 (.033)	1.412	.000 (.034)	1.440	.000 (.034)	1.449
우울			-.188 (-.181)	-7.728 ***	-.184 (-.177)	-7.479 ***	-.242 (-.233)	-7.010 ***
성별(여)					-.029 (-.025)	-1.107	-.028 (-.025)	-1.099
우울 x 성별(여)							.111 (.076)	2.397 *
R^2 (수정된 R^2)	.021(.019)		.050(.047)		.051(.047)		.053(.050)	
ΔR^2			.029***		.001		.003*	
F-test	8.645***		17.371***		15.067***		13.933***	

표 9는 우울과 교사관계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울과 교사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모델 2에서는, 우울은 교사관계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181$, $p < .001$). 그러나 성별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성별은 교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본 모델 4에서는 R^2 이 다소 적은 변화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 = .003$, $p < .05$). 또한, 독립변수 β 값은 (-)의 값을 가지고,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항 β 값은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학생일수록 우울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부정 영향력이 작아지고, 남학생일수록 우울이 교사관계에 미치는 부정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울과 교사관계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beta = -.076$, $p < .05$). 즉, 성별은 교사관계 적응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울과 상호작용할 때, 교사관계 적응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5) 학교생활적응(전체)

표 10은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전체)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전체)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모델 2에서는,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전체)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265$, $p < .001$). 그 다음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살펴본 모델 4에서는, R^2 이 다소 적은 변화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 = .003$, $p < .05$). 또한, 독립변수 β 값은 (-)의 값을 가지고,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항 β 값은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학생일수록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 영향력이 작아짐을 의미함과 동시에 남학생일수록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전체) 변인 간 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beta = .079$, $p < .05$).

표 10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

(N=1,984)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425	46.088	2.970	43.123	2.946	42.779	3.018	40.626
건강상태	.080 (.125)	5.682 ***	.034 (.054)	2.430 *	.037 (.058)	2.644 **	.036 (.057)	2.578 *
성적 만족도	.068 (.137)	6.205 ***	.044 (.088)	4.052 ***	.044 (.089)	4.123 ***	.044 (.088)	4.073 ***
한부모 (기준: 친부모)	.021 (.018)	.761	.018 (.015)	.675	.020 (.016)	.734	.020 (.017)	.755
기타부모구성 (기준: 친부모)	.005 (.002)	.081	.008 (.003)	.126	.020 (.007)	.322	.027 (.009)	.439
가구 연간 소득	.000 (.130)	5.573 ***	.000 (.109)	4.821 ***	.000 (.107)	4.731 ***	.000 (.107)	4.746 ***
우울			-.175 (-.265)	-11.735 ***	-.184 (-.279)	-12.249 ***	-.222 (-.336)	-10.528 ***
성별(여)					.064 (.087)	4.041 ***	.064 (.087)	4.056 ***
우울 x 성별(여)							.073 (.079)	2.567 ***
R ² (수정된 R ²)	.053(.051)		.115(.112)		.122(.119)		.125(.121)	
F-test	22.174***		42.708***		39.223***		35.24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3, 4는 우울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를 시각화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각 집단별 기울기 차이를 보고 판단하는데, 그래프 상에서 남학생 집단(점선)과 여학생 집단(실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3, 4에 의하면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적응전체 수준의 기울기 감소폭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울 수준이 증가할 때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생활적응전체 수준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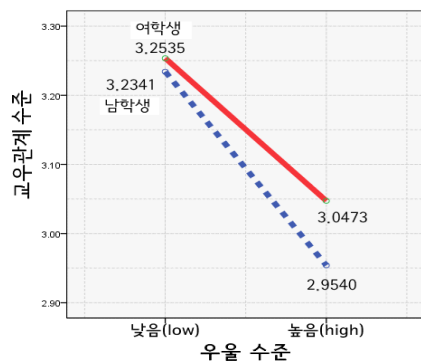


그림 2. 우울과 교우관계에 대한
성별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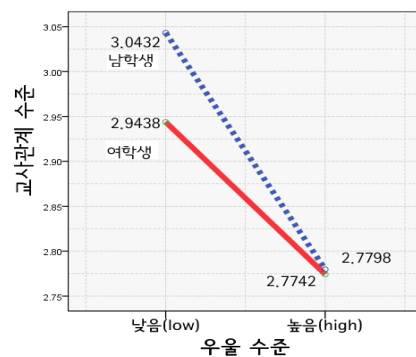


그림 3. 우울과 교사관계에 대한
성별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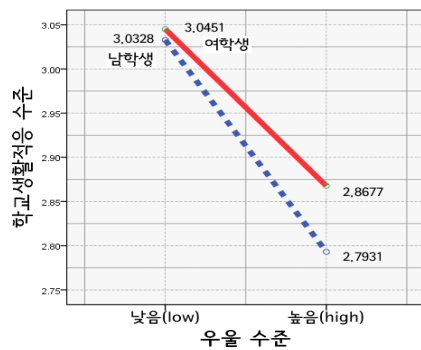


그림 4. 우울과 학교생활적응(전체)에
대한 성별 조절효과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 1패널 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조성진 외, 2001; 김자경 외, 2007; 김명식, 2008; 조운숙, 이정님, 2010; 박정현, 이미숙, 2014), 우울은 하위요인의 합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적응 전체($\beta = -.265, p < .001$) 영역뿐 아니라, 하위요인인 학습활동($\beta = -.247, p < .001$), 학교규칙 준수($\beta = -.096, p < .001$), 교우관계($\beta = -.307, p < .001$), 교사관계($\beta = -.181, p < .001$) 적응 영역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생활적응 변인 중, 교우관계가 우울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07, p < .001$). 이는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 중에서 교우관계가 우울과 가장 높은 부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명식, 2008; 박정현, 이미숙, 2014). 둘째,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따른 조절효과는 학교생활적응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활동과 학교규칙 준수 변인은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우관계, 교사관계,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전체변인은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성별은 교사관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우울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성별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성별이 교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울과 상호작용할 때 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며, 특히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대인관계 적응 어려움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조절효과를 바탕으로, 우울이 남학생의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더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임상적으로 동일한 우울 수준을 보고한 남녀 청소년이라도, 성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적응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성차에 따른 우울의 내·외현화 특성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앞서 언급된 Addis(2008)의 성 반응 이론에 의해 그 원인 규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Addis에 의하면, 성 역할의 사회화는 남성들이 우울한 기분을 인지 및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남성은 심리적 고통을 받을 때 분노, 공격성, 사회적 상호작용 단절 등의 외현화 된 행동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남성 우울(masculine depression)을 경험하게 된다. 즉, 남성 우울은 남학생으로 하여금 여학생과 같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을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 우울의 외현화 특성으로 인하여, 우울을 경험하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대인관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2006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검사를 통해 선별된 아동·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적정 의료서비스 제한은 현재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건강 어려움이 성인기까지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제도권 내 이용가능한 자원의 부족은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동원 및 연계를 통해 채울 수 있다. 대구 지역에서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13년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에 의하면, 대구 지역의 선별된 위험군 비율은 타 시·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강원: 8.1%, 충남: 8.1%, 대전: 8.3%, 제주: 8.4%, 대구: 4.5%). 원인으로서는, 2011년부터 수행된 예방교육,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들, 31개 병·의원 협력을 통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 차이를 고려한 우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울의 내외현화 특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이는 남녀 청소년의 우울 진단 및 개입에 있어 보편적인 접근 뿐 아니라 차별적인 접근 역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우울 수준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제할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인관계 영역에서 더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3년도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를 통해 위험군으로 선별된 남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더 위험집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우선시하는 개입 방식을 취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청소년을 지도하는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하다. ‘가려진 우울증(masked depression)’은 청소년기 우울의 대표적 특징이자 이들의 우울 초기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증상이다. 청소년기 우울은 다양한 문제 행동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행동들은 청소년들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주요인이 된다. 특히, 남학생 우울의 경우, 남성 우울의 영향으로 인하여 분노 및 공격성 증대, 사회적 상호작용 단절 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이 갑작스럽게 증가한다면, 문제행동이 우울증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 및 교사가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시, 우울 특성이 단순 문제행동으로 간과될 뿐 아니라 우울 수준 증대와 우울의 만성화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보호자들에게 있어서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풍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 자료 활용에 기반 한 한계가 있다.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장기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우울 수준과 학교생활적응 수준의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량을 설명하는 분석 방법이 더 이상적이다.

참고문헌

-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99.
- 강유진, 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부터 모든 학생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보도자료.
- 교육부. 2013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보도자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교현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 55-68.
- 김남순 (2008). **우울증 외래환자의 항우울제 투약 순응도와 건강결과의 연관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식 (2008). 아동, 청소년 상담: 일 도시의 남녀 중학생 우울증 유병율과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2), 645-658.
- 김영아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대인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아, 하은혜, 오경자, 김소라 (1996). 한국의 부모와 교사들의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태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45-53.
- 김용래, 허남진 (2003). 학습동기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20, 5-24.
- 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청각장애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불안, 우울,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관계. **특수아동교육연구**, 9(4), 231-247.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은식, 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현, 이미숙 (2014).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

- 리학회지, 32(3), 45-63.
- 보건복지부 (2014).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소선숙, 송민정, 김청송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 손운용, 박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107-129.
- 신민섭, 오경자 (1993).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혼란과 부적응 행동. 한양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 **대학생활연구**, 11, 71-84.
- 신재은 (199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화, 손원경 (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6(4), 157-171.
- 이정선, 이형실 (2012).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4), 77-89.
- 이정윤, 이정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
- 이정은, 조미형 (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79-102.
- 이태상 (2010) 학교 유형별 중학생의 학습태도와 학교생활 적응 관계 탐색.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0(3), 373-388.
- 임규혁 (1991). 학업성취의 누적적 경험과 정신건강. **교육문제연구**, 4, 23-90.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169-183.
- 장신재, 양혜원 (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장규, 김선욱, 류인균, 조맹제 (2001). 한국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27-639.
- 조성진, 전홍진, 김장규, 서동우, 김선욱, 함봉진, 조맹제 (2002).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병률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

의학, 41(6), 1142-1155.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34-956.

조운숙, 이정님 (2010).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8), 27-37.

조은정 (2008).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6), 299-321.

최경일 (2012).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보호요인의 매개효과. **GRI 연구논총**, 14(3), 170-189.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3), 611-628.

최재빈, 곽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민. (1999).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력 간의 상관관계. **대한가정의학회지**, 20(9), 1144-1151.

통계청 (2014). **2013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한창환 (2001)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 품행장애 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격, 자아상 및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황은희, 강지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 **스트레스研究**, 20(3), 149-157.

Addis, M. E. (2008). Gender and depression in me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5(3), 153-168.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Corsini, R. J. Encyclopedia of psychology, Vol.3. second edition.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Bullis, M., & Yovanoff, P. (2002). Those who do not return: Correlates of the work and school engagement of formerly incarcerated youth who remain in the community.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0(2), 66-78.

Carlson, G. A., & Kashani, J. H. (1988). Phenomenology of major depression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Analysis of three studie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0), 1222.

Cochran, S. V., & Rabinowitz, F. E. (2003). Gender-sensitive recommendations for

- assessment and treatment of depression in me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2), 132.
- Courtenay, W. H. (2000). Constructions of masculinity and their influence on men's well-being: A theory of gender and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50(10), 1385-1401.
- Dumas, J. E., & Nilson, W. J. (2003). **청소년이상심리학**. (임영식, 김혜원, 설인자, 조아미, 한상철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Kessler, R. C., McGonagle, K. A., Nelson, C. B., Hughes, M., Swartz, M., & Blazer, D. G. (1994). Sex and depression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II: Cohort effec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0(1), 15-26.
- Kovacs, M., Goldston, D., & Gatsonis, C. (1993). Suicidal behaviors and childhood-onset depressive disorder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1), 8-20.
- Kovacs, M., Obrosky, D. S., Gatsonis, C., & Richards, C. (1997). First-episode major depressive and dysthymic disorder in childhood: Clinical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in recove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6), 777-784.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1081-1100.
- Lewinsohn, P. M., Clarke, G. N., Seeley, J. R., & Rohde, P. (1994). Major depression in community adolescents: Age at onset, episode duration, and time to recurr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3(6), 809-818.
- Lewinsohn, P. M., Rohde, P., Seeley, J. R., & Baldwin, C. L. (2001). Gender differences in suicide attempt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4), 427-434.
- Nolen-Hoeksema, S. (2001).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73-176.

- Nolen-Hoeksema, S., & Girgus, J. S. (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3), 424.
- Pollack, W. S., & Levant, R. F. (1998). *New psychotherapy for men*. John Wiley & Sons Inc.
- Rie, H. E. (1966). Depression in childhood: A survey of some pertinent contribu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5(4), 653-685.
- Weisz, J. R., Suwanlert, S., Chaiyasit, W., & Walter, B. R. (1987). Over-and undercontrolled referral problem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The wat and wai of cultural differ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719.
- Wicks-Nelson, R., & Israel, A. C. (1991).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Zahn-Waxler, C., Shirtcliff, E. A., & Marceau, K. (2008). Disorder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Gender and psychopathology. *Annu. Rev. Clin. Psychol.*, 4, 275-303.

ABSTRACT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Yu, Jiae* · Kim, Wook-Jin**

This study was aimed at determining the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nd to explore appropriate intervention measures for depression by gender.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the 4th Wave of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 of first-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 total of 1,984 respondents were selected as final subject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life, compliance with school rules,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 relationships, which were sub-variables of school adjustment. Second, depression was found to have a partially moderating effect by gender on school adjustment. A moderating effect by gender was found in peer relationships, teacher relationships, and school adjustment as a whole.

Key Words: adolescents,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gender

투고일: 2018. 6. 10, 심사일: 2018. 8. 3, 심사완료일: 2018. 8. 13

* University of Seoul.

** University of Seoul, Corresponding author, kimwj0227@uos.ac.kr